

## ‘5월 조기대선’ 촉각...여 ‘反 이재명’·야 ‘외연 확장’

국힘, 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 ‘탄핵 반대’ 속 조직 강화 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도·보수’ 표방...비명계 잇따라 만나 세규합 총력

최종 변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러 오는 3월 11일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조기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현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잠룡들이 물밑에서 조직을 강화하고 정책·공약을 발굴하는 등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호남 결집’을 외치면서 호남에 애정을 쏟고, 탄핵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과는 일정 거리를 두지만 ‘이재명 심판론’을 띄우며 견제에 나섰다.  
◇탄핵 반대 속 대선 준비는 시작=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잠룡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조기 대선 분위기가 예열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여권에서 언급되는 잠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대권 도전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태환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대권 행보에 나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이 대선 경선의 ‘전조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와 언론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한동훈 전 대표도 책을 발간하며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다.  
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함으로써 두 답사에 걸친 잠행을 끝낸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의 배경이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국민을 우선시한 행보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 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천명했던 ‘선민후사(先民後私)’

와 맞닿는다.  
안철수 의원도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해석이다.  
◇탄핵 여론전 앞세운 정권교체 바람=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 속에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 노선을 표방하면서 외적인 확장에도 신경을 쓰는 등 진보와 보수 갈등에 지친 ‘중도층’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민주당은 3·1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어 탄핵 및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 행보에도 나서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친기업 행보 등 ‘정책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당의 정체성이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잘사니즘’으로 명명한 실용주의를 앞세운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의 포지션’으로 규정하며 외연 확장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 대표가 내세운 ‘막사니즘(막고 사는 문제 해결)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막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꾸렸다. 또한, 전국 청년 위원회 발대식과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이날 연이어 개최하는 등 20·30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당의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통합과 포용’을 내세워 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 진영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정책팀을 가동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당내 조직을 토대로 대선 캠프를 꾸리고 외부 조직도 강화하면서 호남지역 인맥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전문(전문재인)계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24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27일), 김동연 경기지사(28일)와도 회동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총선 공천 때 대표적인 ‘비명계 학살’로 꼽혔던 박종진 전 의원을 만나 힘을 합치기로 하는 등 민주당 내 비명계 규합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 대표 진영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정책팀을 가동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당내 조직을 토대로 대선 캠프를 꾸리고 외부 조직도 강화하면서 호남지역 인맥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 진영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정책팀을 가동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당내 조직을 토대로 대선 캠프를 꾸리고 외부 조직도 강화하면서 호남지역 인맥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 진영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정책팀을 가동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당내 조직을 토대로 대선 캠프를 꾸리고 외부 조직도 강화하면서 호남지역 인맥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 금남로 탄핵 촉구 집회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비상행동의 15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따뜻한 ‘아보하’ 정책 쏟아낸다

<아주 보통의 하루>

대중교통비 지원 ‘광주G-패스’  
대각선 횡단보도·군복무 상해보험  
임신부 가사·손자녀 돌보미 지원  
시청 광장·시민홀 예식공간 개방

광주시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는 따뜻한 복지정책들을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민의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를 위한 여러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아보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의 신조어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모든 세대를 빈틈없이 할인·환급해 주는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시행에 이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어르신 전용콜택시 운영, 시청사 예식공간 개방, 임신부 가사돌봄, 손자녀가죽돌봄, 시민안전보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광주전년 계절꽃 산책로 조성 등 시민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선사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올 1월부터 모든 세대를 할인·환급하고 있는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가 화제다. 광주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기존 K-패스 환급과 광주G-패스 추가 할인을 더해 각각 50%, 64%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대각선 횡단 보도’도 올해 2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보행이동이 많은 상무지구 등 상업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의 기존 횡단보도를 대각선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올 봄시즌부터 주말과 공휴일 시청 잔디광장,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고비용의 정형화한 실내 결혼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비용으로 소울웨딩·아외웨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예약문의가 이어지는 등 반응이 뜨겁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올 봄·가을에는 광주전년에서 유채꽃과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산책로도 만날 수 있다. 시는 유촌교-발산교 4km 구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유채를 파종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해 올 봄과 가을 계절꽃 산책로를 조성한다.

어르신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들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전용 콜택시’가 대표적이다. 광주에선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이면 누구나 전화(062-525-5555) 한 통으로 간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도 눈길을 끄는 복지 정책이다. 이웃지기 활동가들과 고독사 위험군을 1대 2로 매칭하는 제도로, 주 1회 안부 꾸러미 전달 등 주기적인 안부 확인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아내는 게 핵심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학기 광주 대학가 ‘고물가’ 시름 ▶6면  
호랑이 군단, 주전 경쟁 시작됐다 ▶18면  
광복 80년-광주 ‘일제 지하병커·물탱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관광제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12시간만에 만나는 로맨틱 산토리니!

4/27, 5/4, 5/11, 5/18 [단 4회]

광주→인천공항 왕복 리무진 제공  
출발일별 20명 이상  
광주지사 예약시

가부심이 되는 여행  
창립 54주년 특별기획

대한항공 아테네 특별 직항 전세기  
**그리스**  
6천개의 섬과 그보다 많은 신화

그리스 항공 일주 9일  
가격 8,390,000 원~

선착순 6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액 한정 (~2/23 까지)

- 산토리니 특급호텔 2연박 + 크레타 특급호텔 2연박
- 전 일정 7박중 5성급 특급호텔 6박
- 국내선 2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파르테는 신전 View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송아지 코스요리
- 지중해 태양을 담은 산토리니 와이너리 투어

[정부인가조건]

신과 인간의 경계,  
카즈베기를 마주한다!

5/25, 6/1,8,15,22,29 [단 6회]

대한항공 조지아 특별 직항 전세기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코카서스 3개국 9일  
가격 6,390,000 원~

선착순 5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액 한정 (~2/23 까지)

- 카즈베기의 낭만 가득한 하룻밤 'ROOMS HOTEL KAZBEGI'
- 트빌리시의 야경 View 레스토랑 'Funicular Restaurant'
- 항공 이동 1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피티치드 가득한 카즈베기 & 아자트 EASY 트레킹 2회
- 오랫동안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O쇼핑 & NO음식]

[정부인가조건]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4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4년) 한국서비스대상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 15회 수상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21년 연속수상

가면포함 여행: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가이드]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정보] ①여행유의 ②여행금지 ③환급조건 ④여행금지 ⑤여행금지 ⑥여행금지 ⑦여행금지 ⑧여행금지 ⑨여행금지 ⑩여행금지 ⑪여행금지 ⑫여행금지 ⑬여행금지 ⑭여행금지 ⑮여행금지 ⑯여행금지 ⑰여행금지 ⑱여행금지 ⑲여행금지 ⑳여행금지 ㉑여행금지 ㉒여행금지 ㉓여행금지 ㉔여행금지 ㉕여행금지 ㉖여행금지 ㉗여행금지 ㉘여행금지 ㉙여행금지 ㉚여행금지 ㉛여행금지 ㉜여행금지 ㉝여행금지 ㉞여행금지 ㉟여행금지 ㊱여행금지 ㊲여행금지 ㊳여행금지 ㊴여행금지 ㊵여행금지 ㊶여행금지 ㊷여행금지 ㊸여행금지 ㊹여행금지 ㊺여행금지 ㊻여행금지 ㊼여행금지 ㊽여행금지 ㊾여행금지 ㊿여행금지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산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중요사항: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 안전/강제/대구/무인/청주공항 ●여행보험센터: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교호별 이상 2일 1실 사용 ●교통편: 항공, 버스, 철도,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